

이태원 다녀온 도민 105명… 검사는 마무리

이태원發 집단감염, 제주는

제주지역에서 최근 서울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도민은 총 105명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울 이태원 지역 방문 이력으로 12일 기준 6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42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이태원 관련으로 검사가 진행된 인원은 40명이었으나, 이후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해 추가로 65명이 이태원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제외한 81명 모두 ‘음성’ 나머지 23명 결과 대기 중… 도 “방문이력 신고를”

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를 함에 따라 제주지역 검사자는 총 105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이태원을 방문한 이력을 밝힌 영국인 1명도 포함됐다. 해당 영국인은 서귀포의료원 정형외과에 팔과상 치료를 위해 내원한 뒤 이태원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 알렸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태원 일원을 방문 후 검사를 받은 105명 중 도내 14번째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81명은 음성판

정, 나머지 2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 14번째 확진자 접촉자 140명과 관련해 모두 격리조치를 완료했다. 접촉자 136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명(버스기사 1명, 의원 내원객 3명)은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최종 음성 판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접촉자임을 고려해 접촉일 다음 날부터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12일 입도한 외

국인 근로자 22명 전원에게 제주 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논현동 등 수도권 확진자 방문 업소를 찾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태원·논현동 등 수도권 확진자 방문 업소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도민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인근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원기자

분홍빛으로 물드는 이 계절, 한라산

털진달래 이번 주말 절정

한라산 털진달래가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해발 1400고지 이상 아고산 지대에 자라는 털진달래가 오는 15일 최고 절정에 달한다고 밝혔다.

털진달래는 5월 초순 해발 1500고지 영실 병풍바위 일대를 시작으로 서서히 개화가 시작돼 돈내코 코스로 이어지는 남벽순환로를 따라 방아오름 일대, 만세동산, 선작지왓, 윗세오름 주변을 거쳐 점차 백록담으로 개화가 진행된다.

해발 14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털진달래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관목으로 우리나라에선 한라산, 설악산과 지리산의 높은 곳 관목림대에 주로 자란다. 꽃이 유사한 산철쭉과는 달리 털진달래는 꽃이 잎보다 먼



한라산에 만개한 털진달래. 사진=제주도 제공

저 피는 것이 산철쭉과 구분되고 줄기 잎 뒷면에 털이 있다. 특히 산철쭉은 햇가지와 꽃자루에 점성이 있어 만지면 끈적거리고 약간의 독성이 있는 반면 털진달래는 독성이 없어 노루들이 어린 잎을 따먹기도 한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은 “오는 15일을 전후해 해발 1700고지 윗세오름 일대 선작지왓 산상에 털진달래가 만개하면서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원기자

자가격리 어긴 40대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격리장소를 이탈한 A(45)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3월 26~4월 7일)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 달 30일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다. 이에 제주시는 A씨를 고발했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의도적 또는 수 회에 걸쳐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나중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썩빛 바다를 걷다 12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썩빛 바닷속에서 제주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강희만기자

애월항 비산먼지 고통 해소되나

도, 친수시설 조성 추진

제주 애월항 유류부지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수경시설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항 동부두 일원 약 1900㎡의 배후부지에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애월항 동부두는 시멘트·모래 등 산화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부두로서

그동안 인근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와 주택가 등지에서 계절풍 영향에 의한 비산먼지로 많은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항만이용계획이 없는 유류 부지를 활용해 산책로(310m), 차양시설, 수립대 등 친수 시설로 조성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한편 용천수를 활용한 수경시설을 계획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

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해 지역주민 대표 및 항만종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애월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항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기자 lty9456@ihalla.com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의당 도당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놓고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도민 전체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 신

청이 시작되자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애초의 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며 행정

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로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지급은 전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은 도민 70만명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책정된 550억원에서 150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기자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정으로 안심 !!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개시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10년

8개 참여기업 “하자보증기간” 비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